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1.6.(월) 조간	배포	2025.1.3.(금)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권홍	(02-3145-7240)
		담당자	팀 장	박수홍	(02-3145-7242)
	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	책임자	국 장	김은순	(02-3145-7750)
		담당자	팀 장	정주은	(02-3145-7970)

##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

- ◆ 감독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'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(공시이율 예실차 등)를 검토하는 한편, 계리가정(무·저해지보험 해지율)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.
- ◆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,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'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

### 1 주요 추진경과

#### [ 가. IFRS17 안정화 로드맵 ]

☞ 「새로운 보험회계제도(IFRS17)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·지원해나가겠습니다」 ('24.4.11. 보도참고)

- 감독당국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,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

- (이슈발굴)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(보험사), 확인자(회계·계리법인), 이용자(애널리스트)별 릴레이 간담회(5~6월, 6회)를 통해 잠재이슈를 선제적 발굴하는 한편,

☞ 「금감원,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」 ('24.5.9. 보도자료)

- (이슈검토)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함께 발굴된 잠재 이슈를 검토하고,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\* 및 질의회신연석회의\*\*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
\* 금감원내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회계·보험계리 전문 교수를 포함하여 이슈를 논의

\*\*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간 MOU에 따라 운영되는 K-IFRS 관련 질의에 대한 심의·자문기구

- 특히, 최근에는 **공시이율**(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)의 **예상**과 **실제 차이**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**질의회신연석회의** 및 **회계심의위원회** 심의를 거쳐 회신\*(12월)한 바 있습니다.

\* 당기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상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(PL) 처리할 수 없으며,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**당기손익(PL)**과 **기타포괄손익(OCI)**으로 체계적으로 배분 필요

#### ※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

##### (1) 공동협의회

- **부채평가지 장래손해조사비 반영** : 보험부채 산출시 보험계약에 직접 관련된 모든 미래 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하므로 **장래 예상되는 손해조사비도 포함**
- **CSM 상각률 산출기준** : 장래이익인 CSM의 상각률(=당기분 ÷ 전체 보장단위) 계산시, '예상치'가 아닌 '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'를 기준으로 상각률을 계산

##### (2) 질의회신연석회의·회계심의위원회

- **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** : 보험계약 소멸시, 해당계약의 기타포괄손익(OCI) 잔여금액은 즉시 **손익(PL)**으로 반영 불가 ➡ 차기로 **이연인식** 필요
- **공시이율 예상차 처리** :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 예상차는 당기에 **전액 손익(PL)**으로 인식 불가 ➡ **당기손익(PL)**과 **기타포괄손익(OCI)**으로 체계적 배분 필요

##### (3) 기타 오류 수정 지도

- **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** : A사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부채 평가시 차기 갱신일까지만 현금흐름을 추정 ➡ 갱신가능한 **최대만기까지 현금흐름을 추정**토록 지도
- **CSM상각률 산출 방식** : B사는 CSM상각률 산출시 할인을 적용상 착오로 인해, 상각률을 낮게 산출(당기손익 과소 인식) ➡ 오류를 수정하여 **상각률 재산출** 지도

### [ 나. 보험개혁회의 ]

□ 원칙 중심의 기준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합리적·자의적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IFRS17 제도 안착을 도모하였습니다.

- ①무·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, ②할인을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
- ③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④주요 재무정보의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.

☞ IFRS17 안착을 위해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합니다 (‘24.11.4. 보도자료)

‘합리적인 계리과정과 단계적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계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(‘24.11.8. 보도자료)

※ 보험개혁회의의 新회계제도반 과제별 주요 내용

- ① 무·저해지 해지율 합리화 : 경험통계가 부족한 미래 기간에 대해 자의적 가정을 배제하고, 산업통계 및 해외유사통계 등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
- ② 할인을 현실화 연착륙 : '25년 적용 예정이던 할인을 최종관찰만기(실제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 구간) 확대(現20년→30년)를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
- ③ 사업비 집행 합리화 : 기초서류에 정한 한도內에서 수수료 등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법규(제재 근거) 정비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감독(업무보고서 신설) 강화 추진中
- ④ 공시 및 외부검증 강화 : 주요 재무정보(예. CSM 변동 사유, 최적가정 등) 공시사항을 표준화·구체화하여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, 외부검증 부실시 제재 강화 등 시장내 자정기능 활성화 추진中

## 2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(시사점)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·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

○ 다만,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,

-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'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○ 한편, 초장기(최대 120년)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.

□ (향후계획) 이에 금융당국은 ❶'24년 결산 및 ❷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❶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제도기간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'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▶ 외부감사인 정기간담회 : 보험사 외부감사인과 정기적(예. 매2주)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'24년 결산 감사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·논의

▶ IFRS17 Hot-line\* : 보험업계로부터 결산 관련 주요 질의·이슈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검토·대응

\* 금감원이 운영 중인 IFRS17 이슈 질의·회신을 위한 전용 이메일 회선

❷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,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계리에 대한 감독·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·추진하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